

#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2014년 33호

겨울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http://www.caupharm.or.kr>



# Contents

2014년 제33호 겨울호



신년사 1	청마의 날새고 활기찬 기상으로 갑오년 새해를 열어갑시다 • 장재인(17회) 동문회장
시론 2	약하지만 강한 것을 두렵게 할 수 있다! • 전광우(18회) 부회장
학교소식 3	'기수별 장학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 서동철(23회) 모교 학장
동문회 소식 4	약학대학 창립 60주년 기념식
6	동문회 소식
동기회 소식 10	세월아 게 섰거래! • 이희정(17회) 총무
12	먼 길 달려온 친구들이 반갑고 고맙다! • 현기원(27회)
14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 김학림(37회) 동기회장
심포지엄 17	약대 개교 6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기리며... • 손의동(22회) 국제심포지엄 준비위원장
체육대회 22	개교 60주년 기념 동문 체육대회 • 고석일(30회) 체육이사
약국도움이야기 26	항생제의 사용원칙 • 편집위원회
회비내역 30	회비내역
장학기금 32	장학기금 현황
만평 34	함께 하는 도약... •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편집후기 35	편집후기

## 중앙약대 동문회보

인쇄 : 2014년 2월 19일

발행 : 2014년 2월 20일

발행인 : 장재인 | 편집인 : 김기명

발행처 :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2호

전화 : 565-1700 팩스 : 564-1701

인터넷 : <http://www.caupharm.or.kr>

E-mail : [capa21@hanafos.com](mailto:capa21@hanafos.com)

기획·인쇄 : (주)YSP

전화 : (031)955-0150(대)

팩스 : (031)955-0159



# 청마의 날쌔고 활기찬 기상으로 갑오년 새해를 열어갑시다!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새해 2014년은 갑오년 청마의 해입니다. 갑오년은 육십간지 중 서른 한번째 간지로 방위로는 태양이 솟아오르는 동쪽을 가리키고 색으로는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는 청색입니다.

올해 우리 동문회도 청마의 날쌔고 활기찬 강한 유니콘처럼 힘차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학교 동문들은 그동안 한국 약학발전의 주역으로서 약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능력 있는 직능인으로서, 또한 이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많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안주는 곧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명성에 더해 더 큰 발전의 미래를 우리는 개척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재단과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동문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더욱 발전하는 갑오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동문회의 발전은 동문들의 애정과 관심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능동적인 참여 속에서 역동적인 동문회가 되어지고, 그리하여 60주년의 찬란한 역사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명성에 더해 세계로 웅비하는 약학대학으로 거듭나고 그에 걸맞는 동문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갑오년 새해 동문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재인 (17회)  
동문회장



# 약하지만 강한 것을 두렵게 할 수 있다!



전 광우 (18회)  
부회장

藥師로서 천생연분을 갖고 약사면허중에 애착과 자부심으로 살아온 지금!

잠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되돌아 보는 시간이다.

약사로서 나 자신보다는 주민들의 위하여 헌신 봉사하며 사랑방 역할을 한 인간적인 애착이 있는 약국외에 어디 또 있을까? 독거노인, 장애학생, 양로원, 청소년쉼터, 여성쉼터 방문 및 학교폭력 예방 활동, 지역범죄 예방 활동, 자율방재 활동 등 주민과 근접해서 苦樂을 함께한 일들이 보람으로 이어져 행복한 나자신이 되기를 바라는 바인데 개국약사로서 설자리를 잃게 될 위험수위에 와있다고 본다. 전국 약사님의 지혜와 용기, 강인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일반의약품이 편의점으로 나가면서 처절한 경험을 하였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또다시 불벼락이 떨어진다고 하니 茫然自失한 것이 사실이다.

화장실 가기 전·후가 다른 인간들에게 우리가 강조한 약사윤리강령이 무슨 소용 있겠나? 국민 모두들 희망찬 새해 靑馬처럼 힘차게 전진하라고 국민행복시대를 얘기하지만 나는 국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기업 행복시대”, “약사불행시대”가 되라는 반대 논리가 되네요.

도대체 국민이란? 누가 국민인지 알수 없네!

지금 이순간 우리는 약사직능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비정상적인 사고를 갖는 자에게 의연히 맞서 투쟁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외침이 찻잔속의 태풍이 아니되도록 외부사회와 교류하고 참여하여 약사들의 현실을 홍보하여 국민들이 함께 호응해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 속으로~”라는 슬로건으로 매진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상대방에게 한번 속았을 땐 그 사람들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두 번 속았으면 자신을 탓하라]

세상은 약하지만 강한 것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

첫째, 모기는 사자에게 두려움을 준다.

둘째, 거머리는 물소에게 두려움을 준다.

셋째, 파리는 전갈에게 두려움을 준다.

넷째, 거미는 매에게 두려움을 준다.

아무리 크고 힘이 강해도 반듯이 무서운 존재라고는 할 수 없다.

매우 힘이 약하더라도 어떤 조건과 의지만 갖추워져 있다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 ‘기수별 장학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친애하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선후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모교 약학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서동철입니다.

얼마 전 여러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약학대학 개교 60주년 기념식을 약학관 11층에서 거행하면서, 그 자리를 통해서 약학관 신축이라는 대역사를 마무리한 이후 약학대학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문회 장학기금 모금행사에 대해서 장재인 동문회 회장님과 제가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간 우리 약대는 입학 기수별 동기회를 근간으로 입학 또는 졸업 영년 기념식에서 꾸준하게 장학금 또는 발전기금을 모금하여 왔으며,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초유의 약학관 건립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으로 그 꽃을 피운 바 있습니다.

최근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모교 약대가 6위라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는데 원인중에 하나가 평가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부 장학금 지원이 타학교에 비해 너무 적은 것이 문제가 되어 동문회 회장단과 고민을 거듭하다 각 기수별 장학기금 5천만원 모금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기탁이 된다면 이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전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고, 산출되는 이자만으로 오로지 모교 후배들에게 장학금으로만 집행이 되며, 따라서 ‘00학번 장학기금’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존속이 되는 장학금입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장학기금 모금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행사에 사명감을 가지고 늘 참석을 마다하지 않는 몇몇 동문들이 상당한 부담을 해 줌으로써 지탱이 되어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이야말로 앞서 언급한 배경과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볼 때 특정한 몇몇 동문이 아닌 우리 동문회 전체 사업이 되어야 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장학금을 모금하는 것입니다. 동문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후배들에게 큰힘이 되며 저희 모교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수별 장학기금’ 모금에 동문 여러분의 의미 있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동문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며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철 (23회)  
모교 학장

2014년 2월 14일 서동철 드림



60<sup>th</sup>  
Anniversary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개교 60주년 기념식

□일시 : 2013년 11월 15일(금) 19:00 □장소 : 102관 11층 University Club □주관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 약학대학 개교 60주년 기념식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개교 60주년 기념식'이 지난 11월 15일(금) 오후 7시,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11층 University Club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용구 총장과 김성덕 의약학계열 부총장, 조갑출 간호부총장, 서

동철 약학대학장, 장재인 약학대학 동문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오제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동문 및 교직원 등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는 ▲개식선언 및 국민의례 ▲약학대학 연혁보고 ▲기념사(약학대학장) ▲치사(의약학계열 부총장) ▲격려사(총장) ▲축사(약학대학 동문회장 외 3명) ▲발전기금 전달식 및 표창 ▲기념 케이크 커팅 ▲만찬 및 축하공연 ▲교가제창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표창 수여식에서는 동문 45명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자랑스런 중앙 약학인상’ 시상식도 함께 거행됐다. 우리 대학 약학대학을 빛낸 동문을 선정해 수여하는 본 상은, 이기안(약학과 59학번)·노신희(약학과 61학번) 성수약국 대표와 임성기(약학과 58학번) 한미약품(주) 회장, 조찬휘(약학과 67학번) 대한약사회 회장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동철 학장은 “우리 약학대학은 60주년을 기점으로 교육과 연구에서 재도약해 세계 속의 약학대학으로 발전할 것이다”며, “오늘 국제 심포지엄과 기념식 행사가

약학대학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역사적인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용구 총장은 “약학대학의 7천 3백여 동문이 사회 주요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모습을 볼 때 매우 뿌듯하고 자랑스롭다. 약학대학의 명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대학 본부도 늘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는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3층 대강당에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심포지엄 특별강연에서는 ‘Development of Stereodivergent and Ambivalent Organic Reactions’를 주제로 약학 연구리더 초청 강연이 펼쳐졌으며, 1부에서는 학생 학술발표, 2부에서는 21세기 약학연구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 3부에서는 중앙대 약학대학 연구발전을 위한 대토론이 이루어졌다.







# 동문회 소식



● 8월 30일  
장학기금 운영위원회



● 9월 3일  
한미약품 임성기(6회) 회장 방문





● 9월 10일  
제2차 회장단회의



● 9월 26일  
모교의 날 골프대회 (장 소 : 88CC)



● 9월 27일  
2013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



● 10월 13일  
모교의 날 체육대회 (장 소 : 중대부속중학교운동장)





● 10월 15일  
약학대학 동문회 장학기금 협약식



● 10월 19일  
17회 졸업 40주년 기념식 (장소: 대전유성호텔)



● 10월 20일  
37회 졸업 20주년 기념식



● 10월 24일 초도이사회  
장소: 중대약대 11층 (University club)



● 11월 9일  
27회 졸업 30주년 기념식



● 11월 15일  
약학대학 60주년 기념식





● 11월 15일  
여동문회의



● 12월 6일  
고문단회의



● 12월 26일  
회장단 송년회



● 1월 9일 신년교례회  
장소 : 약학대학 11층 세미나실



● 1월 16일  
(주)온누리약국체인 박종화(23회) 대표이사 방문



● 1월 23일  
렉스진 바이오텍 권석형(23회)사장 방문





# 세월아 게 섰거라!

69동기회 졸업 40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 이희정 (17회) 총무

어제, 오늘, 내일... 청운의 꿈을 안고 사회의 큰 바다 속에서 약사로서 살아오던 세월이 벌써 40년이라!! 하루하루의 일상이 그리 크게 달라질 것도 없으련만 머리에는 허연 서리가 내리고, 가슴은 못다한 갖가지 사연이 쌓여 시리도록 저리며, 발은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마음 가는 속도의 절반도 못따라 가게 느껴진 현실을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만큼은 도망가는 세월을 기필코 붙잡아 놓으리라!

혼장처럼 새겨진 주름살을 현명하게 나이 들어가는 방

중이라 여기며 69동기회의 졸업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는 날 하루는 구름도 저 멀리 도망쳐 버리고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했다.

청아한 공기 속에서 모임 장소인 대전 유성호텔 로비에 모여든 20여명의 동기생들은 오랜만의 만남을 확인하듯 서로 달라진 모습들을 바라보며 '너냐! 나냐!' 하면서 반갑게 포옹하고, 잡은 손을 놓기가 아쉬운 듯 연신 흔들고 소리치고 웃고 하는 모습이 마치 빛바랜 이전 중



고교 시절의 수학여행 삽화와 같은 따뜻함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그렇다. 동기들을 만나서 그냥 기분이 좋은 것이다. 아니 정말로 기분이 좋은 것이다. 변명이나 체면치레가 무의미해진 이 시간, 마음 편하게 즐길 일만 남은 것이다.

69동기회 김성지 회장의 진정성이 담긴 기념사에 연신 고개를 주억거리며 오랜만에 일상에서 탈출한 여유로움을 서서히 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느껴지면서 한층 더 마음이 편해졌다. 이어 학교 문을 나선지가 40년이 되었지만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한 모교와 후배들을 위한 마음이야 퇴색될 수 없기에 마침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의 중책을 맡은 장재인 동기에게 더 큰 일을 해달라는 격려의 마음을 동시에 담아 십시일반 정성으로 모은 동문회 발전기금 5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공식적 의례가 끝나고 동기생들과 담소를 나누며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는 그 어떤 호사스런 음식이나 진귀한 요리가 무색할 지경으로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오랜만에 라이브밴드의 댄스곡에 맞추어 신나게 흔들고 하다 보니 꼭 40년 전으로 되돌아간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청남대를 관광한 후에 청남대 한우고기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동기회 졸업 40주년 행사를 마무리했다. 개별적인 모임이야 차치하고, 앞으로 10년 후 다가올 졸업 50주년 행사에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는 덕담으로 헤어지는 아쉬움을 대신했다.

헤어지는 마당에 한두 마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 참석하고 싶은 심정이야 굴뚝같지만 건강이 허락지 않아 부득이 같이 하지 못하는 동기들이 하나둘 늘



어나는 것이 남의 일 같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동기 모임에 터죽대감처럼 절대로 빠지지 않는 유00 동기와 특히 별떡 일어나 같이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도 간절할 조00 동기의 쾌유를 전 동기들의 이름으로 기원한다. 늘 배려의 마음을 보여주는 여자동기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건 아니면 몸은 비록 같이 하지 못하나 누구보다 일찍이 동기들 모임의 성공을 위해 마음을 하나로 합쳐주었던 그 힘으로 우리 동기회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재삼재사 확인한다.

끝으로 동기회 졸업 50주년 기념식을 울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바 벌써부터 멋진 행사의 주역임을 자처한 울산 거주 이동우 동기의 역할을 기대하며 건배를 든다. 동기들의 건강과 우리 중앙대 약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건배!

영감이 끊어지고 정신이 희미해져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란 열음에 갇힌 사람은  
 비록 나이가 이십 세라 할지라도 이미 늙은이와 다름 없다.  
 그러나 머리를 드듬어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사람은,  
 팔십 세 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일 것이다.  
 - 사무엘 울만



# 먼 길 달려온 친구들이

# 반갑고 고맙다!

## 27회 동기회 졸업 3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며...

| 현기원 (27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벌써 3번이나 변했으니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11월 초순답게 낙엽이 휘날리고 거기에다 비까지 뿌려대는 날씨이고 보니 웬지 지난 날 교정에서 어묵국물에다 막걸리 한잔 곁치고 시국을 논하던 생각이 배어 난다.

당시만 해도 계엄하의 비상시국이었으니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는지 모른다. 거의 반년을 등교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배회하였으니 말이다. 한 학년 위 선배들은 수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약사국시를 보아야 했으니 그 어려움이야 더 말할 것도 없었다. 데모와 시위가 매일 반복되었고 학내 자율화로 인한 회장 선거로 어수선했음이 교정을 휘감고 있었다. 그래도 낭만은 있었다. 가을 축제가 되면 어김없이 대화가요제가 열렸고, 루이스 가든(현 약대건물) 앞 잔디밭은 젊은 남녀로 인산인해였다.

실험반 활동도 왕성하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씨클(동아리) 활동도 인기가 있었다. 약창, 약수, 약협이 대표적이었는데 아마도 금남의 집인 여학교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동하여 가입한 친구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2013년 11월 16일 27회 동기회 졸업 30주년 기념행사

당일 저녁 삼삼오오 50대 중반의 신사들이 홀을 가득히 메워 간다. 나이가 들었어도 옛 모습은 그대로이다. 서로 악수하고 반가운 마음에 몸을 껴안고 얼굴엔 모두가 웃음꽃이 피어난다. 졸업 후에 처음 본 친구도 있으니 그 반가움을 어디에다 비하랴! 다수의 여자 동기도 왔는데 20대 초반의 어여뻐던 여학생이 중년의 여성이 되어 있어 세월의 무상함이 다시 상기가 되었다.

김종갑 교수님의 출결 확인이 시작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는데 옛 느낌이 그대로 배어 나왔다. 한 강의실에 120명이 강의를 들은 적도 있으니 모두를 체크하기란 어려우셨을 것이다. 나도 가끔 '땡땡이'를 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친구에게 대답을 부탁하곤 했다. 그렇게 하고도 무사히 넘어갔으니 운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다. 아마도 이런 사실을 교수님이 알고 계시는지.....

120명 졸업에 50명 정도가 출석을 했으니 70여명이 오지 못한 것이다. 오고 싶었지만 저간의 사정이 있어 결석하려니 이해도 가지만 마음 한편에 섭섭한 마음이 움트는 것은 보고 싶었다는 마음이 격해서 그러했으리라고 위안을 해 본다.

나는 '은사님에 대한 답사'에서 엄하고 자상하였던 교



수업을 회상하였다. 탱크가 교문 앞을 지키고 그 앞을 얼씬거리기만 해도 붙잡아 가는 비상시국에 교수님 모두가 나오셔서 빨리 피하라고 외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강의 시간에는 잠으로 엄하게 하여서 감히 열심히 하지 않고는 졸업을 할 수 없었으니 말이다. 재시험은 술자리의 안주거리였다. 누가 재시험을 제일 많이 보았느니 하면서....“재는 머리가 나쁜데, 어떻게 중대에 들어 왔지? 너 혹시 뒷문으로 들어온 것 아냐?” 그렇게 떠들곤 했다.

손동헌 교수님은 부산 피난시절 어렵게 공부했던 시절을 회고하며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위기이자 또한 기회라고 하시며 1회 선배님답게 모든 동문들이 합심하여 훌륭한 인재를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아마도 6년제 약대가 되고 나서 신생 약대는 물론 타 약대가 장학사업을 통해서 우수한 두뇌를 뽑는데 대한 자성의 기회를 갖자는 의미일 것이다.

기념회 내내 아쉬웠던 것은 은사님을 모셔 놓고 우리끼리 잔치한다는 느낌이었다. 물론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이 앞서서였다지만 식사만 하시고 가시는 은사님을 보며 앞으로 후배들은 함께 즐기는 기념회를 준비하였으면 한다. 2차 기념 파티를 위해 학교 앞으로 장소를 옮겼는데 옛 정취가 그대로 묻어났다.

좁은 골목길의 선술집과 분식집이 시야에 들어 왔다. 태원 다방에 앉아 DJ가 틀어주는 디스크 음반을 따라 흥

얼거리던 추억이 아련히 떠오른다. 300원 짜리 라면에 막걸리 한잔 걸치고 마치 이 세상을 다 가지고 흔드는 것 마냥 착각에 빠져 있었던 20대의 젊은 날이 고스란히 생각나는 것이다. 젊음은 돈 주고도 못 산다고 했던가.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 젊은 날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야 깨닫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일 일지도 모른다. 그 시절은 그 시간에 맞게 청춘을 즐기라고 주어진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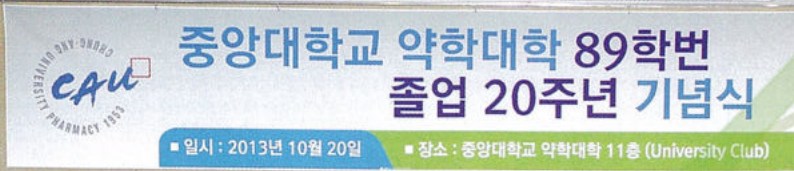
2차의 여흥이 동기들을 더 가깝게 동여매는 것 같았다. 술 한 잔이 들어가고 음주가무가 이어지니 그 동안 가까이 하지 못했던 속내가 드러나고 앞으로 자주 만나는 교감들이 이어지는 것 같다. 그래, 만남이 있어야 할 이야기가 있고 추억이 생겨나는 것이지!

노후지만 은사님이 건강하게 생존해 계시고 30년이지난 지금에도 함께 자리를 할 수 있으니 이 또한 행복이라고 할 것이다. 자주 뵙지는 못하겠지만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재차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도해 본다.

김정호 동기회장, 오순용 총무 정말 수고 많았네. 기념회 진행하느라 한봉길 동기도 애썼고, 모든 동기들을 대신하여 정말정말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박수를 보낸다. 부산서, 밀양에서, 강릉에서, 대전에서, 논산에서, 진천에서, 광천에서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온 동기들에게도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89학번 졸업 20주년 기념식 후기

| 김학림 (37회) 동기회장

1989년에 마지막 80년대 학번으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계열에 입학했던, 우리 89학번 동기들이 졸업한 1993년으로부터 올해로 꼭 20주년이 되었다. 졸업 후에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동기들은 지난 20년 동안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었고 어느덧 20년의 시간이 지나 사회생활 시작한 후 성년을 의미하는 졸업 20년이 되었다. 자랑스러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전통에 따라 89학번들도 졸업 후 성년이 되었음을 기념하여 졸업 20주년 기념식을 준비하게 되었다. 지난 20여년 동안 간간히 연락이 되어 만나는 동기들이 있었지만, 많은 꿈들을 가지고 있었고 즐거웠던 20대 초반을 공유했던 많은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보고 싶다는 생각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먼

저 어떻게 준비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들었지만 때때로 모임을 갖고 있었던 페이스북의 중대약대89학번그룹을 바탕으로 하여, 이번 졸업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먼저, 부족하지만 필자가 동기회를 대표해서 준비모임을 구성하기로 하고 각 실험반 반장들과 페이스북 동기그룹 회원을 위주로 준비위원(이정우, 고성호, 황선관, 이호범, 김학선, 윤기호, 이주몽, 김동순, 박재형, 정지훈, 한덕희, 정승안, 이순임, 안의성, 김순한, 양수근, 이경모, 김연희, 백수형)을 선임하여 본격적인 준비활동에 들어갔다.



첫 번째로 준비할 것은 20주년 기념식의 소식을 전하고 연락을 위한 주소를 확인하여 주소록을 작성하는 것이었는데, 다행히 선견지명이 있었던 김순한 동기가 수고를 해 지난해 주소록 초본을 만들어 두어 이것과 동문회 주소록을 바탕으로 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준비위원들이 동기들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확인하면서, 안부도 묻고, 20주년 기념식 행사도 홍보 해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 최종 주소록이 완성되었다. 다만 끝내 아쉬운 것은 여러 준비위원들의 노력에도 외국에 거주한 친구들과 일부 동기들은 끝내 연락처를 확인하지 못해 20주년 기념식에 대한 정보를 전해 주지 못했다. 연락을 받지 못해 참석을 못한 동기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며 추후 확인이 되는대로 앞으로의 동기회 행사에는 꼭 연락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동기회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전화를 할 때에 20여년 만에 처음 통화를 하게 되는 동기들도 있었는데 전화를 하는 마음은 매우 반가웠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먹먹한 마음도 한 칸에 있었는데, 전화를 받는 동기들이 모두 오랜 친구의 연락에 반갑게 맞아주어, 동기들에 대한 반가움이 나서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서먹함을 녹여주어 20주년 기념 모임 준비에 많은 격려가 되었다. 다시 한번 연락을 하고 모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준비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게 된다.

행사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행사준비에 관련된 여러 업무를 준비위원들에게 분장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여, 행사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특히 여학우 대표는 안의성 동기가 맡고 회계와 관련된 업무는 김학선 동기가 맡아서 수고를 많이 해주었다. 1차 준비 모임에서 행사일을 10월 20일로 정하고 장소는 모교 11층에 위치한 University Club으로 정하여 동기들에게 1차 연락을 하였으며 정식 초청장도 제작하여 발송하였다. 여러 번에 걸쳐서 문자발송을 통해 동기들에게 20주년 기념식을 홍보하였고, 은사님들과 동문회장님께도 참석하

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 드렸다.

준비하면서 발생하는 소소한 문제들은 뛰어난 능력과 개인의 시간을 기꺼이 내서 준비를 도운 여러 준비위원들 덕분에 행사준비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드디어 2013년 10월 20일 저녁 5시에, 기다리던 졸업20주년 기념행사가 시작되었고 학창시절 우리들을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과 동문회장님, 동문회 사무총장님, 90학번 대표 등 20여명의 내 외빈들과, 50여명의 동기들이 참여한 가운데 막이 올랐다. 아울러 조찬회 대한약사회장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다. 실제 기념식은 1부 사회를 맡은 양수근 동기가 준비한 영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염정목교수님께서 간직해 오신 우리 동기들의 입학사진을 바탕으로 하여 출석부를 만들었고 염교수님께서 직접 출석체크를 해주셨는데 1학년때의 모습이 슬라이드로 비춰질 땐, 너무 웃겨서 모두들 한바탕 웃게 되었는데 이런 웃음이 행사를 화기애애하게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1부 행사는 양수근 동기의 원만한 진행을 통해 교가제창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되었고 맛있는 식사와 함께 교수님들의 건배사를 통해서 모임의 분위기는 한층 더 달아 올랐다. 식사 중간에 상영된 슬라이드 쇼를 통해서 추억의 사진을 되짚어보고 반가운 은사님, 동기들과 회포를 푸는 넉넉한 시간이 지나고 여흥을 위한 2부순서가 시작되었다.

2부시작은 멋쟁이 트럼페터 박재형이 아름다운 가을 밤에 맞는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트럼펫 곡으로 연주하면서 시작되었다. 본인이 취미로 30년간 갈고 닦은 아름다운 트럼펫 소리에 모두들 흐뭇한 미소가 저절로 얼굴에 떠올랐으며, 멋진 재능을 선보인 박재형동기를 통해서 참석한 동기들의 마음에 지난 20여년간의 세월을 넘어 마치 얼마 전까지 같이 학창시절을 보낸 듯한 감동이 밀려와 연주곡명처럼 시월의 어느 멋진 날로 기억이 될 듯 하다. 이어서, 모두를 포복절도의 도가니로 몰아 넣은 안의성 여자 동기회장의 성대 모사를 통한 친





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은 2부 행사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으며 개그콘서트 현장에 와 있는 듯했다. 다음 모임에는 더 재미있는 입담으로 즐겁게 해주겠다고 공언하여 동기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너무 멋있고 기억에 남는 동기들의 공연에 이어서, 행사 준비 위원회에서 즐거운 20주년 기념식을 위해 초청한 행사전문사회자의 진행으로 여흥이 이어졌다.



초청사회자의 다양한 마술공연에 모두들 감탄을 연발했으며, 자연스럽게 적극적인 참여로 처음의 쑥스러움이 사라지고 준비된 상품을 위한 열띤 경쟁 속에 우리 동기들 간의 친근감이 배가 되는 시간이 되었다.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게임에서 신발을 벗고 도전한 투혼을 발휘한 원영경 동기가 최고의 상품인 콜맨텐트를 획득했으며 다양한 상품을 획득한 여러 친구들의 활짝 웃는 모습에서 참석한 동기들 모두가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공식적인 졸업20주년행사는 막이 내렸고, 장소를 학교근처 주점으로 옮겨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서 모임 뒤풀이를 하였다. 대부분의 동기들이 뒤풀이에 참석하였으며 동기들의 다양한 이야기들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재미 있는 대화가 계속 이어졌다. 여러 동기들의 격려 속에 이정우 동기가 평소에 지어 놓았던 본인의 자작시 발표를 통해서 뒤풀이 여흥을 최고조에 이르게 하였다. 자리를 같이한 동기들과 좀 더 친근한 대화가 끊이지 않고 늦게까지 계속 이어졌고 늦은 시간까지의 모임으로도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의 회포를 풀기엔 너무나 모자란 시간이어서 모두들 아쉬움 마음이 든 시간이기도 했다. 빠르게 흐른 시간을 야속해하며, 아쉬움을 뒤로하고, 조만간 또 만날 것을 기약하며 우리들의 졸업 20주년 기념식은 잘 마무리되었으며 다음 모임을 기다리고 있다.





# 약대 개교 6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기리며...

세계로 응비하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드디어 환갑!  
학생과 전 동문이 협력하여 강연과  
토론으로 새로운 60년의 시작을 알리다!



손의동 교수 (22회)  
국제심포지엄 준비위원장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 개교 60주년을 맞아 2013년 11월 15일 약학대학 R&D센터(102관) 3층 대강당에서 이를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필자를 포함한 교수 7인의 준비위원회 (간사 천영진, 위원 김대경, 김홍진, 조사연, 배지현, 김은영)에서는 60년 만에 이루어지는 향연에 걸맞게 약대 교수 학생 대학원생 및 동문들이 모두 참여해 강연과 토론을 준비하도록 하는 안을 기획하게 되었다. 국제심포지엄을 무사히 마쳐 기쁘며 대신하여 기록을 남김에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해를 바랍니다. 학교와 각계 동문이 모여 강연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심포지엄을 통해 새로운 60년의 시작을 알리고 세계로의 응비를 자축하며 빛내었다고 말하고 싶다.

천영진 교수의 사회로 열린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서동철(23회) 학장은 “그동안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은 약계 전반은 물론 제약산업에도 꾸준히 진출하여 모교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속의 약학대학으로 우뚝 솟았다. 그동안의 중앙대 약대의 발자취를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개교 6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주제 : 21세기 약학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

□일시 : 2013년 11월 15일(금) 오후 1시~6시    □장소 : 102관 약학대학 3층 대강당    □주관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돌아보며 앞으로의 비전을 열심히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중앙대 약대 동문회 장재인(17회) 회장은 “60년 동안 이어온 약학대학의 역사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 국내 최고 명성의 약학대학으로 이어졌으며, 국제심포지움과 기념행사가 약학대학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는 축하의 말을 전했다.

행사는 개회식, 특별강연에 이어 1부 학생 발표, 2부 21세기 약학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 3부 세계로 응비하는 약대 발전을 위한 대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특별강연

‘DEVELOPMENT OF STEREODIVERGENT AND AMBIVALENT ORGANIC REACTIONS’라는 제목으로 인디애나-인디애나폴리스퍼주 대학교 오경수 교수가 유기화학반응에 금속촉매, 반응중간체 및 다양한 파라미터의 변화를 줌으로써 다양한 화합물을 합성할 수 있다는 이론을 설명했다



#### 1부: 학생 발표 (좌장: 천영진 교수)

첫 번째로, 중앙대 약대 약제학연구실(이상현 외 11명)은 여름방학동안 실험한 ‘고체분산체를 이용한 Celecoxib의 가용화’에 대해서 발표했다. 약제학교실 학생들은 PVP K30이라는 합성 고분자 수송체를 사용하여 Celecoxib를 고체분산화 시킴으로써 용출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두 번째로는 생체방어조절연구실(권경완 외 3명)은 ‘Exposure to extremely low-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s affects resveratrol treated macrophage cell’이라는 주제로 실험내용을 발표했는데, 자가면역질

환과 같이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될 경우 전자장장을 활용하면 면역반응 억제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약품자원학연구실(이정옥 외 11명)은 ‘Flavonoid constituent from the aerial parts of *Smilax china*’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청미래덩굴이 천연 항산화제 개발에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 2부: 21세기 약학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

(좌장: 황완균 교수)

김대경 교수는 ‘국민행복시대 약학의 미래비전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약학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약학교육 연혁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국제조화와 선진화를 위해서 약학교육의 학제 개선과 증원, 약대 6년제 학제의 안정적 정착 등을 제안했다.

조찬휘(15회) 대한약사회장은 ‘예비약사에게 드리는 제언’으로 대한약사회의 소개, 미래 발전전략, 약사사회



이정옥 학생





조찬휘 회장

에서의 중앙대 약대의 위상, 약사회장으로서 후배들에게 바라는 점을 들려주고, 특히 약사사회에서의 우리 중앙대 약대의 위상에 대해서 깊이 강조하며 학부생은 물론 모든 동문들에게 중대 약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충분히 가지자고 전했다.



이상준 소장

이상준(21회) 안전성평가연구소 소장은 생명공학분야 전망에 대해 발표한 바, 바이오는 장기간의 R&D 투자와 고위험성이라는 위험요소를 가지기는 하지만 고수의 창출이 가능하며 세계시장 단위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바이오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야 함을 역설했다.

권광일(19회) 충남대 약대 교수는 'PK/PD modeling and population analysis'라는 제목으로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임상약학교실의 연구활동에 관해 소개했으며, PK/PD 등 임상시험 연구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었고, 약대 발전을 위해 교수진의 노력과 분발을 촉구했다.

강규태(43회) 덕성여대 약대 교수는 'Building blood vessels using human vasculogenic cells'라는 제목으로 기존의 맥관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혈관을 형성하여 허혈성 하지모델에서의 치료법에 대해서 발표했다.

### 3부: 세계로 응비하는 약학대학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좌장: 손의동 교수)

이재휘(33회) 교수가 '세계를 선도하는 약학대학의 교육과 연구발전 방안'에 대해 발제를 했고, 패널토론으로 학교측 설명에 이어 동문측에서 영역별로 토론발표 및 질의응답을 하였다.

발제내용을 보면, 2011년에 약학대학 R&D센터 신축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최첨단 교육 및 연구시설을 확보하는 등 약학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대한 현황을 설명했고, 종합적으로 최고의 약사 양성 교육, 약학연구 핵심 인력 양성, 교수 역량 강화, 각계 각종 동문들의 협조를 통해 노력함으로써 세계 명문 대학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첫 번째 패널토의로 손동현(1회) 명예교수는 '약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의 토론을 진행한 바 개국약사로 대거 진출했던 어제와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고, 재단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교육 및 연구 인프라 구축을 이루어야 하며, 졸업 후 산업분야나 공직 등으로 눈을 돌리고 시야를 넓혀 세계인을 상대로 하는 직업인이 되라고 당부했다.

김태수(58회) 학생회장은 '중앙대 약대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 바 활발한 제약업계 및 약국 진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문적인 활동은 미흡하며, 세계 약학대학 평가에서 순위 저조, 전국 약학대학 내의 중앙대 출신의 교수 수가 학생 숫자에 비해 서울대, 성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학문정진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원 진학과 더불어 열심히 업적을 쌓아 학문적인 성과를 성취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남윤진(55회)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대학원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이끌어낸바 대학원 진학률을 높이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구적인 노력과 본부에서의 지원제도가 다양해져야 하며, 제약계와 공직계에 관심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교육제도 및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영달(27회)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약사의 역할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대한약사회 올해 주요 업무로 수가 인상, 토요일 전일가산제, 청구 불일치 약국 문제 해결 등을 소개했으며, 약사 정책으로는 대체조제 활성화, 처방전 리필제, GPP(우수약국 실무기준) 도입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약사는 끊임없이 보건의료 정책을 개발하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6년제 교육에 대해서는 실무실습 제도를 약사회와 협조하여 잘 개발해야 하는 등 약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현오(29회) 서울성모병원 약제부장은 ‘병원 약사 현황 및 비전’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바 중앙대 출신이 병원약사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성모, 중앙대, 세브란스, 삼성의료원 순으로 모교 출신이 많이 포진하고 있음을 밝혔고, 환자중심의 약학 교육, 임상약학 교육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상호교류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중효(21회) 일동제약 기획조정실장은 ‘제약계 동향 및 발전방향’에 대해 제약계 취업률이 4.6%이고 중앙대 출신이 서울대, 성대 등에 비해 제약회사 근무자가 많지

않으며, 특히 상위 제약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중앙대 약대 출신 약사의 비율이 낮음을 안타까워했다. 6년제 교육시 제약관련 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무실습 제도를 강화하여 제약에 흥미를 가지도록 자긍심을 키워주어야 하며, 제약회사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김관성(26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청장은 ‘약학대학 발전을 위한 공직약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직으로 봉직한다는 것은 특히 개인의 의지가 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라와 사회를 변화 시킬 수 있는 공직약사로 진출하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산학관 상호간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 질의응답

학부생 3명과 대학원생 2명, 약대교수, 2부 연자(청중)가 질문 및 응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 **중대생 학계 진출 문제:** 이 점은 교수, 학생, 동문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교수는 기본 소양 지식은 물론 연구과제, 우수 논문 발표, 국제 활동업적을 대학생들에게 고취시켜 학문적인 성취에 대한 동기유발과 흥미를 고취시켜야 한다.

■ **병원약사의 진로 문제:** 병원에서 몇 년 근무하여 전문약사 과정을 거치면 대학원에 진학하여 이론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장래가 밝은 편이다. 6년제 하에서는 임상약학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므





로 도전해 볼 만 하다.

■ 제약회사에서의 약사의 장점(약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 제약회사에 들어가서 마케팅 분야로 많이 진출하고 있다. 약사는 공장의 GMP, QC, QA를 담당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많이 경험하여 여러 부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약회사를 자주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회사를 자주 그만두는 것의 해결책은 회사에서는 약사에게 기를 살려주고 잘 배려하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 학교에 바라는 부분: 교수는 교육과 연구업적을 성취해야 하고 약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대 약대 교수들이 적극성이 부족하므로 학술 교류나 국제적인 조화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즉, 자기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극대화하여 학생이나 동문에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약사회에 바라는 점: 약사회는 이익단체의 틀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가는 정책을 펴야한다. 즉, 여러 위원회에서 수립한 정책을 국민 여론과 함께하여 올바른 정책이 반영되도록 한다. 약국에서 경험하고 공부한 것을 학술 발표를 통하여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올해 1회 종합학술제가 열리는데 첫 순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많은 학술 초록이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201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약학연맹 총회(FIP)가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다.

■ 기타 의견: 앞으로 학교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자주 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종합 결론

학교와 학생, 동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기획특집으로 마련한 강연과 '세계로 응비하는 약학대학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는 뜨거운 열기 속에 시간의 부족함을

아쉬워하며 활발하게 진행되어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즉,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와 동문간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특히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에 신경을 써 개국약사에 치중된 비율을 개선해 다양한 분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1) 약사의 직능을 올바르게 교육시키고 교육계, 병원약사, 제약회사, 공직계에 대한 교육 및 연구방향을 잘 설정해 동문과 협력해 나가야 한다.

2) 학교에서는 교육계(교수 및 연구직) 뿐만 아니라 병원의 전문약사로서, 제약계에서 품질보증, 마케팅, 임상, 영업 분야 등을 거쳐 CEO로 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3) 공직계는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구청의 보건행정직 등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관련과목인 약무행정과 경영학의 교육강화에 힘써야 한다.

결론적으로, 약대 발전과 다양한 진로선택을 위해서는 학생과 교수의 부단한 노력으로 교육과 연구분야를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동문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분발하고 학교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학교와 동문은 교육계, 병원약사, 제약, 공직약사에 더 많이 진출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약대의 발전은 구성원 모두의 힘으로 이루어 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기필코 해낼 것이다!

그간 심포지엄을 진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교수, 학생, 대학원생, 동문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개교 60주년 기념 동문 체육대회

고석일 (30회) 체육이사

**먹고 마시고 뛰고 즐기되 알맹이가 있는 버라이어티쇼를 연출하라!**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평소 남의 눈에 띄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근년 들어 늘 약사사회 생활의 한 부분으로 동문회 활동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 그런 작은 모습들이 선배님들 눈에 들었던 탓일까? 동문회 새 집행부가 들어서며 내게 부여되었던 그 임무, 체육 부문을 맡아라!

체육대회는 정기총회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동문이 참석하는 동문 축제의 장이다. 따라서 동문회 집행부는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번 체육대회는 남다른 의미를 더하게 된바 중앙대 약대 개교 60주년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덧 씌어져 맞이한 체육대회인 것이다.

그 와중에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행사 진행자가 베테랑에서 신참으로 바뀌었으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으며, 앞친데 뒷친 격으로 준비를 위한 회의에서부터 대폭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표출되었다.

이번 행사의 기획 및 진행을 담당할 임원으로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지난 몇 년간의 그만그만한 진행으로 추진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하여 행사에 의미도 부여하고 재미도 있는 행사를 만들라는 것이 내게 주어진 과제였다. 한마디로 먹고 마시고 뛰고 즐기되 알맹이가 있는 버라이어티쇼를 연출하라는 것이다.

행사의 진행 및 내용에 있어 무엇이 바람직하고 어떤 점이 개선할 대상인가는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 또한 분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지난날의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걱정이 주를 이룬다. 동문회 모든 행사에서 나날이 짙어지는 노령화! 오십이 넘은 동문이 막내 자식처럼 여겨지고 더 젊은 동문은 재롱둥이 손주처럼 여겨지는 진풍경을 배경으로 여간해선 프로그램에 녹아들지 않는 참석 동문들의 고고함이라니! 어찌하랴, 바야흐로 이 모든 것을 만족시켜야 하는 진행자로서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모든 동문들이 골고루 참여하고픈 프로그램을 배치하라!**

체육대회의 시작은 흥겹게 몸을 푸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도 제대로! 시작이 좋으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사실 이를 위해 노련한 에어로빅 강사 내지는 쪽쪽 빵빵 치어리더를 섭외하려 했었으나 자칫하면 쓸데없는 위화감을 불러 일으킬까봐 재학생 선도의 국민체조로 소박하게 시작하는 것으로 급선회 했다.

기획단계 내내 고민했던 바는 참석하신 모든 동문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아니 참석하고픈 프로그램을 고루 안배해 그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일 이었다. 어느 한 게임을 진행하더라도 연령대별로 배려를 하며 경쟁을 시킨다면 공정한 게임이 되고 재미도 배가되어 참가율이 높아지리라 생각했다. 그리하여 발굴해 낸 게임이 깃발잡기였다. 평소의 지론인 ‘체육대회가 체육대회다워야 체육대회지’를 늘 가슴에 품고 모든 과정에 임

한 결과였다.

20대 재학생 동문을 필두로 참석자 전원이 체육대회답게 숨을 헐떡이며 뛰어 보게 할 요량이었으나, 그렇지만 역시나 존경스러운 극소수 선배님을 제외한 노장년층은 끝내 참가지 아니하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순간 서늘한 바람이 등골을 싸~훑고 지나간다.

기대치가 확 무너지며 그동안 고민해 왔던 모든 과정이 한심해 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후회하고 실망하고 할 여유도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프로그램 순서를 바꿔 구원투수를 올리는 마음으로 족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래도 체육대회의 주 종목은 족구요 주인공은 사오십대 소장파가 아니던가. 역시나 족구가 시작되니 체육대회 분위기가 나기 시작한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함성소리도 들린다. 이제사 진행자도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동선과 시선을 행사에 집중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본부석 뒤에 설치한 식당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역시 체육대회의 꽃은 먹거리! 어느덧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니 조금 전의 걱정과 우려는 눈녹듯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일사천리로 흘러간다. 식당 앞마당에서 술과 음식과 더불어 진행된 제기차기, 윷놀이 등은 홈커밍데이 프로그램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감초 역할을 톡톡히 했다.

**야심작 볼링게임과 미니골프, 그리고 줄다리 기 성대결**

그동안 체육대회 진행에 있어 항상 소외되어 왔던 노년층 선배님들을 위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그중 하나가 볼링게임 이었다. 연로하신 선배님들이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임이고 상품도 개인전 형식으로 즐겁게 전해드리는 형식을 취했다. 또 하나의 회심작은 미니골프 대회였는데, 이 또한 나이 드신 선배님들을 배려하고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게임으로 사전에 참가신청을 받은 결과 70여명이 신청을 하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다. 시간관계상 50여명이 최대 수용인원인데 다행스럽게도 젊은 동문들이 흔쾌히 양보하여 무난히 끝낼 수 있었으니 두 배의 기쁨을 느꼈다.



이제는 여동문들을 배려할 차례다. 배려의 핵심적인 개념은 여동문 전원이 참가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여동문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런 뜻을 살려 고안한 것이 여성과 남성의 줄다리기 성대결이었다. 이 부분 또한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 전체적인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치수를 맞추기 위한 시범경기에서 남녀 공히 힘을 쓰지 않는 재치는 대단한 유머감각의 일단을 보여 주었다.

남녀 비율을 1:2(남15명:여30명)로 하여 힘겨루기를 해 보니 여동문의 일방적인 승리! 다시금 남동문을 20명으로 늘려 진검승부를 해 보았으나 이 또한 여동문의 완벽한 승리였다. 여성우위의 현 세태를 가감없이 반영한 그런 게임이 되었다. 참여한 여동문 모두에게 빠짐없이 상품을 수여했다. 세계 최초(?)로 시행된 남녀 줄다리기 성대결은 참석자 모두에게 즐거움을 준 색다른 경험으로 평가되었다.







체육대회를 마치고 스스로 평가를 해본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우려와 달리 이번 행사는 기획 의도의 70%정도를 발현해 낸 것 같다. 그럼에도 참석자 대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다. 물론 수고한 진행자들의 노고를 일상적으로 치하하는 의미가 크다는 걸 알기에 우쭐할 일은 없겠으나, 몇몇 선배님들은 특별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전해 주셨다. 마음고생의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다시 힘을 내야겠다. 부족하지만 여러 선후

배들의 경험과 지혜와 열정을 받아들일 겸허한 마음만 있다면 절반의 성공인 오늘을 넘어설 수 있으리라. 벌써 내년 체육대회가 기다려진다. 걱정반 기대반의 초심을 잃지 않아야겠다. 모교 교수님들과 행정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재학생들의 헌신적인 봉사, 이루 말할 수 없는 진행요원들의 수고로움,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모든 동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며 초보자의 분투기를 마무리한다.



# 항생제의 사용원칙

세균(bacteria)의 족보를 찾아서 II  
| 편집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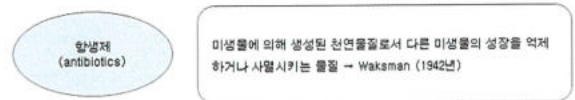
## 세균 잡는 약 - 항생제

현재 임상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약물 중의 하나인 항생제(antibiotics)는 여러 가지 병원성 미생물 중에서 세균(bacteria)이 유발하는 각종 감염증에 적용하는 약으로, ‘미생물에 의해 생성된 천연물질로서 다른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사멸시키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1942년 Waksman이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자연계에 있어서 미생물들 사이의 길항적 현상을 의미하는 항생현상(antibiosis)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천연산물을 말하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화학적 합성이나 반합성 등의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물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용어들을 살펴보면 화학요법제(chemotherapeutic agents)는 가장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화학요법에 사용되는 모든 화학 물질을 총칭하는 의미이나 지금은 주로 항암 화학요법을 지칭하며, 세균 뿐만 아니라 진균이나 바이러스 등 다른 병원성 미생물에 작용하는 약물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는 항미생물제(antimicrobial agents)라는 용어가 적합하며, 가장 대표적인 병원성 미생물인 세균에 대해서 특이적인 작용을 나타내는 물질이 항균제(antibacterial agents)로 항생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마

지막으로 합성 항균제(synthetic antibacterial agents)라고 하면 세균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항생제와 다를 바 없으나 미생물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공적으로 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말하는데, 설파제와 퀴놀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임상에서는 두 약물 모두 세균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굳이 구분하지 않고 합성 항균제까지 포함해서 항생제 혹은 항생물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화학요법제 (chemotherapeutic agents)	가장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화학요법에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총칭하는 의미입니다.
항미생물제 (antimicrobial agents)	세균 뿐만 아니라 진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에 작용하는 약물을 모두 포함합니다.
항균제 (antibacterial agents)	병원성 미생물 중에서 특히 세균에 대해 특이적 작용을 나타내는 약물을 말합니다. (= 항생제).
합성 항균제 (synthetic antibacterial agents)	미생물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공적으로 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말합니다. (설파제, 퀴놀론)

표1. 항생제의 정의

## 항생제 사용은 이렇게

특정한 감염증으로 진단되면 내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치료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적의 항생제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는 크게 ‘원인 병원체의 확인 및 동정’과 ‘감수성 검사’의 두 가지 과정으로 나



눌 수 있습니다.

항생제 요법의 최초의 관문이며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원인 병원체의 확인 및 동정 (identification)으로, 감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원인 병원체를 추정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검사하기에 충분한 숫자의 세균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하게 채취한 검체(sample)를 표준화된 배지에 접종하여 하루 정도 배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양된 세균 집락(colony)의 크기, 모양 및 색상 등을 기준으로 세균을 식별하며, 염색후 현미경 하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오래 전부터 사용하던 그람염색법 (Gram staining)은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가장 신속하고 유용한 진단방법으로 인정되어 지금도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인데, 몇 단계의 염색 결과 처음의 보라색을 그대로 유지하는 균을 그람양성균(Gram positive bacteria)이라 하며, 탈색된 후 붉은색으로 염색되는 균을 그람음성균(Gram negative bacteria)이라고 합니다.

이런 염색성의 차이는 양성균과 음성균 사이의 세포벽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어떤 항생제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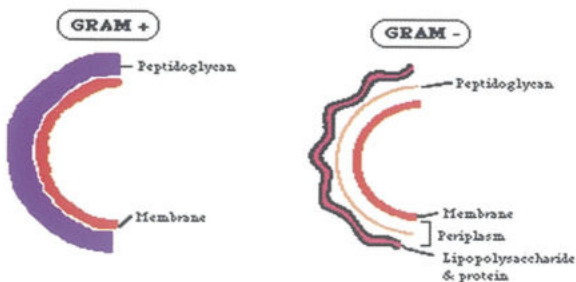


그림 1. 세균 구조에 따른 염색성 차이

보다 정밀한 방법으로 PCR이나 DNA probe 등 분자생물학적 기법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원인 병원체가 분리되면 이를 이용하여 직접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 검사 (susceptibility test)를 실시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디스크확산법 (disc diffusion method)으로 세균이 도말된 배지에 각기 다른 종류와 농도의 항생제가 함유된 디스크를 올려 놓은 후 하루 정도 배양을 하는데, 디스크 주변의 투명한 부분이 크면 클수록 세균이 그 항생제에 감수성이 있다는 의미이며, 반면 세균이 디스크의 가장자리까지 성장을 계속하는 경우 그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임상검사표준화협회(NCCLS)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susceptible (감수성), intermediate resistant (중간 내성) 및 resistant (내성)로 판정을 내립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흔히 희석법 (dilution method)이라고도 하는 시험관내 감수성 검사로, 액상배지 내에 일련의 희석된 항생제를 함유하는 시험관에 세균을 첨가하고 배양하여 세균의 성장 정도를 검사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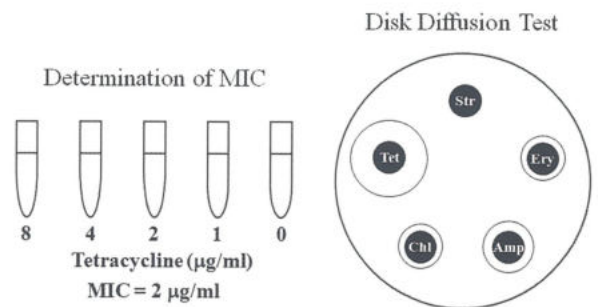


그림 2. MIC의 측정

그 결과 얻어진 세균의 활성을 저해하는 항생제의 최소농도를 최소억제농도 혹은 최소발육저지농도, 즉 MIC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라고 하며, 세균을 사멸시키는 항생제의 최소농도를 최소살균농도, 즉 MBC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생제의 용량은 최소한 MIC 이상의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 항생제는 얼마나 오래 사용해야 할까?

다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적절한 항균요법의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감염증으로 진단이 되면 그에 따른 표준 치료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감염증의 유형이나 병원체의 종류 및 특성, 숙주의 면역능력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며, 별도로 기간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경험적인 기준에 의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통상 *E. coli* (대장균)가 원인균인 단순성 방광염의 경우는 3일만 투여해도 치료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만, 약물의 침투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전립선염의 경우는 4주-6주 정도를 투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약물을 투여한 지 며칠이 경과하면 환자가 불편해 하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소실되게 되는데, 이때 치료가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도중에 투여를 중단하면 재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차후 내성의 발현과도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항생제 요법의 실제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단 특정 감염증으로 진단되어 표준 치료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치료 도중 증상 소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끝까지 투여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염증	치료기간(일)	감염증	치료기간(일)
균혈증	10-14	폐렴	최소 5일(덜었이 3-5일까지): <i>S. pneumoniae</i> 21-28: <i>S. aureus</i> 21-42: <i>Enterobacteriaceae</i>
분위각염	10	전립선염	28-42
방광염	3	급성골수염	42
급성신우신염	14	중이염	10
세균성 성내막염	14(-28): <i>Viridans streptococci</i> 28-42: <i>Enterococcus</i> 14-28: <i>S. aureus</i>	쯔쯔기무시병	7(또는 3)
수막염	10-14: <i>Pneumococci</i> 7: <i>H. influenzae</i> , <i>N. meningitidis</i>	감염성 관골염	14-21
비염균성 요 도염	7	급성 무비동염	10-14
인두염	10	장티푸스	7(3-14)

표 2. 항생제의 사용기간

### 내성의 발생이 문제다

항생제가 개발된 이후로 감염증은 더 이상 인간의 건강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믿어졌지만, 항생제가 개

발된 후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내에 세균이 내성을 획득함에 따라 이제는 항생제 내성이라는 주제가 임상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항생제에 대한 세균의 내성 획득에 대항하여 내성 기전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항생제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여전히 새로운 항생제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기전을 갖는 신종 세균들이 출현함으로써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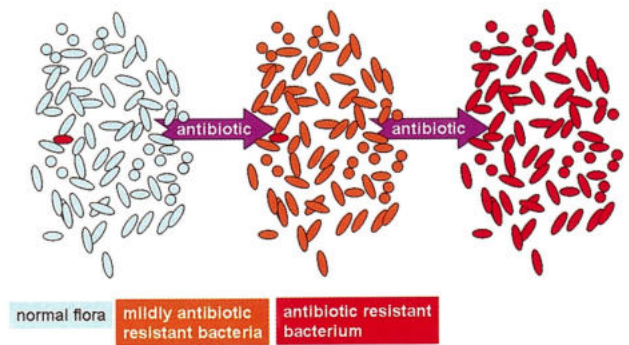


그림 3. 내성의 발생

내성(resistance)이란 항생제를 반복해서 사용함에 따라 약효가 저하되는 현상으로, 다시 말해 세균이 항생제에 대해서 저항성(drug-fastness)을 획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돌연변이로 인해 항생제의 작용에 대응하는 단백질이 변화함에 따라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생제는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복용하여 세균을 사멸시킬 수 있는 최소의 혈중농도를 연속적으로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증세가 완전히 없어진 후에도 2~3일은 더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증세가 없어졌다고 해도 몸 안에 세균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항생제의 사용을 중단하면 남아 있던 균들이 내성균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성균은 다른 균에도 내성을 전이시켜서 내성균이 계속 늘어나게 하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면 항균력이 더 강한 항생제를 사용하든지 다른 계열의 항생제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 베타락타마제의 역습

세균이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 즉 내성을 획득하는 기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항생제의 불활성화로, 쉽게 말해 세균이 항생제를 가수분해시키거나 불활성화시키는 효소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세균은 베타락타마제( $\beta$ -lactamase)라는 효소를 생성함으로써 베타락탐계 항생제의 구조를 파괴하는데, 이는 세균이 내성을 획득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기전입니다. 베타락타마제는 penicillinase와 cephalosporinase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aminoglycoside 변형효소에 의해 aminoglycoside계 항생제가 불활성화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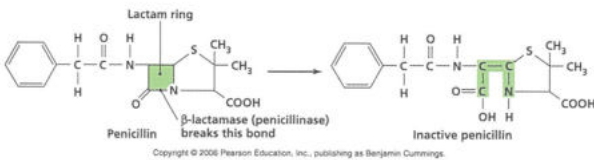


그림 4. 베타락타마제의 작용

두 번째 내성 발현의 기전으로는 표적부위(target site)의 변형을 들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의 특정 부위에 결합함으로써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 특정부위를 유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내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minoglycoside나 macrolide, tetracycline 등은 세균 세포내 리보솜의 약물 결합부위가 변화되어 약물이 작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막 투과성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특히 그람 음성균의 경우 세포외막에 물질의 투과 기능을 가진 포린(porin)의 투과성이 저하됨으로써 항생제의 효용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세균 세포 내로 항생제가 들어오는 대로 밖으로 내보내어 항생제의 농도를 저하시켜 내성을 보이는 유출(efflux) 현상 역시 알려져 있습니다.

항생제의 내성은 결국 환자 치료의 실패라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이전에는 쉽게 치료가 되었던 감염증이 치명적인 질병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최악의 경우 항생제 이전의 시기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항생제 불활성화	항생제를 가수분해시키거나 불활성화시키는 효소의 생성 → $\beta$ -lactamase의 생성
표적부위의 변형	항생제가 결합하는 특정 부위를 유전적으로 변화시킴 → 리보솜의 변화
막 투과성의 변화	그람 음성균의 세포외막에 존재하는 포린의 투과성 감소
유출	세균 세포내로 들어온 항생제를 그대로 유출시킴

표3. 항생제 내성 발현 기전

특히 우리나라의 내성 발생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임을 명심해야 하며, 항생제의 오남용은 결국 여러 가지 항생제들에 대해 내성을 가진 균, 즉 다제내성균(multi-drug resistant bacteria; 소위 슈퍼박테리아)의 등장으로 이어져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은 갈수록 어려워져

페니실린 이후 수많은 항생제가 개발되고 감염증 치료에 사용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지만, 그 사용이 증가되어 가면서 내성균의 비율 역시 크게 증가되었으며, 이런 내성균을 박멸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항생제가 필요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항생제의 개발은 많은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반면 갈수록 개발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 건수는 1980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미국 FDA가 승인한 새로운 항생제는 단 한 개에 불과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 회비내역

2013년 6월 ~ 2014년 1월

회장단회비(600,000원)	
17회	장재인, 김성지, 선우영환, 송진섭, 신상직, 신창억, 안환옥, 유종관, 이완철, 이희정, 주완표
18회	박계환, 전광우, 정명진, 조중형
19회	이경옥, 윤건섭, 김경오
20회	김현태, 박기배, 유영내, 이상일, 정찬헌
21회	김수배, 김중효, 최병철, 박전희, 홍종오
22회	강희윤, 유대식, 전일수, 최광훈
23회	박종화, 임준석, 정덕기, 한치완
24회	이광섭, 이규삼, 이범도, 함삼균, 황규진
25회	김광호, 김희섭, 이내홍, 조석현, 최두주
26회	김안식, 오옥희, 윤용혁, 최민규, 한갑현
27회	곽나윤, 김정호, 박영달, 한봉길
28회	김영희, 김희식, 양덕숙, 이영주, 이해룡, 장원규, 전금용, 최용철
29회	손병로, 유종운, 강대용
30회	고석일, 김광식, 백영주
32회	정선중, 조양연
33회	김은근, 조준상
34회	김보원
35회	도건호, 이경선, 임종식

이사회비(150,000원)	
1	손동헌
2	지선훈, 이문규, 박문호
3	강승조, 최종목
4	정재현
5	윤원영
6	유상열, 박정배, 김동열, 안병한
7	한철희, 정재일, 서명규, 이양현, 유영후, 박명신
8	김희영, 조의환, 박번일, 배영애, 한석원
9	박장우, 윤광로, 박성학, 김홍래, 문영동, 이근배, 권혁구
10	박호일, 이양원, 변도문, 유정사
11	박찬희, 김미자, 고승하, 최옥출, 김창중
12	강옥희, 심재웅, 염윤기, 이성우, 조택상, 이관하
13	김병현, 엄계숙, 이종각, 박동규, 윤해선, 서국진
14	구종모, 김동원, 김종렬, 김윤국, 신광근, 윤대봉
15	이상용, 정해성, 조찬휘
16	최창원, 백승복, 송용만
17	이윤식, 김인형, 정갑진
18	김애경, 강응모
19	권창호
20	임경원, 이신규, 류화송
21	백운경, 이상준
22	전철호, 오황영, 손의동, 이명옥
23	박희용, 김영출
24	양성철, 임무호
25	조석현
26	김정수A, 문형철, 선우일원, 최태영
27	변옥희, 윤영한, 최종대, 이원일, 유재수, 오흥설, 박수길
30	최병원
34	김영미
35	김미정, 최규룡
36	듀캠바이오



일반회비(30,000원)			
6	김진달	28	김경완, 양창국
8	강윤구, 서동섭, 염규종, 유재우, 윤광중, 임진택, 정달수, 조수현, 조현인	29	김종선, 민희정, 박춘화, 심미선, 장우성, 한규인
9	권오성, 김학진, 배희영, 이경주, 이병호	30	강승억, 고은숙, 곽필신, 조덕희, 홍염미
10	김명민, 민병창, 박상길, 심수일, 이원일	31	김찬수, 유영숙, 이동익, 한미영
11	구자역, 안홍신, 양계철, 오성근, 이기호, 이범진, 이석태, 전창환, 차영진, 최민재	32	김삼숙, 나희진, 양승희, 정세진, 정현삼, 채영주
12	김대건, 문혜성, 유건수, 임순성, 홍근수, 홍정덕	33	소정우, 최현정
13	우동진, 이우식, 최창조	34	박상권, 성선경
14	김현숙, 류호성, 유영철, 이용성, 이춘재, 전영표, 정도연, 현혜경	35	김진
15	박태효, 이덕노, 정육주	36	유복진
16	권희문, 박상환, 박종애, 신규연, 이규주, 이재용	37	전상인, 조구욱
17	신승백	38	황성환
18	양만기, 육득윤, 홍현식	40	이병두
19	남윤수, 장호성	41	이은경
20	남덕자, 송열호	42	이창경
21	이훈영, 조복, 한찬수	44	허행수
22	이순명, 이주원, 천경호	45	고기현
23	권석형, 나용태, 오항록, 이계석, 임창영, 한병철	47	김영준, 이승민
24	강창주, 김태환, 문숙희, 최금순, 한성엽	48	최지혜
25	문태화, 이동규, 조경래	49	강령아, 박아연
26	손영상, 양승훈, 이근주, 이순아	50	강지연
27	강영희, 김경희, 문연숙, 박상규, 염승호, 전명수	54	윤두천
		55	김채진, 이새롬, 이슬기
		56	최영진, 변혜영, 이경민



CAU 모교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이기안·노신희 부부 동문 부동산 기증식

□ 일 시 : 2013년 12월 19일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102관 11층 U·C □ 주 관 : 대외협력실 대외협력팀



이기안(59학번)·노신희(61학번) 약학대학 동문 부부의 발전기금 전달식이 12월 19일(목) 오전 11시 30분,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11층 University Club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용성 이사장과 이용구 총장, 박상규 본부장, 이태희 상임이사, 문희중 법인 사무처장, 조숙희 대외협력실장, 각 계열 부총장을 비롯해 총 20여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을 통해 이기안·노신희 동문 부부는 충남 당진군에 있는 29,058㎡ 면적의 토지를 우리 대학에 기부했는데, 해당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0억 7천만 원 상당이다.

이용구 총장은 “중앙대학교를 사랑하는 두 분의 마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감사를 표하고 “중앙대학교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기안·노신희 동문 부부는 “모교의 10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순간에 기여할 수 있고, 동시에 후배들을 위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두



배로 기쁘다”며 “우리의 기부가 약학대학 기부의 기폭제가 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번에 기증된 토지는 부부의 뜻에 따라 매각 시 절반은 100주년 기념관 건립기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약학대학 이기안·노신희 장학기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부자 부부에게는 명예 약학박사 학위가 수여되며, 100주년 기념관 시설물에 이름이 새겨지는 등 최고 수준의 예우가 제공된다.



# 장학기금현황

2014년 2월 10일 현재

장재인(17회)동문회장	10,000,000	한갑현(26회) 사무총장	6,000,000
손동헌(1회) 명예교수	30,000,000	이종양(26회) 동문	3,000,000
홍흥만(1회) 동기회장	1,000,000	성정희(26회) 동문	360,000
故김명섭(5회)자문위원	100,000,000	김정호(27회) 사무부총장	6,000,000
용영일(7회) 동문	5,000,000	남상진(27회) 동문	3,000,000
최옥출(11회) 동문	1,000,000	박영달(27회) 동문	3,000,000
김윤국(14회) 동문	5,000,000	최충식(27회) 이사	3,000,000
최해광(17회) 동문	3,000,000	민병희(27회) 이사	600,000
임경원(20회), 이현숙(31회) 동문	7,200,000	이영주(28회) 사무부총장	6,000,000
김현태(20회) 부회장	3,000,000	양덕숙(28회) 부회장	5,000,000
이극선(20회) 동문	3,000,000	장원규(28회) 동문	3,000,000
정찬현(20회) 동문	3,000,000	곽필신(30회) 동문	3,000,000
이승하(23회) 동문	10,000,000	이병두(40회) 동문	3,000,000
이내흥(25회) 부회장	3,000,000	김정민(41회) 동문	3,000,000
이동규(25회) 동문	5,000,000	정원희(53회) 동문	2,000,000
김영후(26회) 이사	6,000,000		





# 함께 하는 도약...

(갑오년)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너도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성장하고 변화하는 중앙약대를 위하여 동문 선배들의 장학기금 모금에  
 갑오년 새로운 다짐, 희망찬 출발입니다.

####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이른 아침 출근길부터 나이도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친구가  
 거침없이 담배연기 휘날리며 앞서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인상이 심상치 않다.  
 나 또한 순간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을 하려다 멈춘다.  
 아무리 생각해도 연로하신 아버님 유일한 낙이 담배 피시는 일 아니신가!  
 그렇다. 불륜과 로맨스의 차이를 짐짓 모르는 체 인정하기로 하자.  
 시침 뚝 떼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히 출근길 재촉할 일이다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흡연을 허하기를 청하노라!)

#### 박희용(23회) 편집위원

지난주 대한약사회를 방문, 조찬회 약사회장에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이름으로 법인약국 저지성금을 기탁하고 왔다.  
 약사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이라  
 도저히 그냥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당연한 선택이라는 격려의 말씀이 고맙지만,  
 한편으로 동문회 안살림을 살펴보자면 한쪽 어깨가 처지는 것도 솔직한 현실이다.  
 어찌랴! 넉넉하지 않은 재정, 더 아껴 쓰는 수밖에.  
 평소와 달리 회보에 동봉된 회비 지로용지를 들고  
 앞다투어 은행으로 달려가는 동문들의 발걸음을 기대해 본다.

#### 김정호(27회) 사무총장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국민건강연구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국민건강을 지켜온 일동제약...  
한결같은 믿음과 노력으로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ILDONG** 일동제약  
SINCE 1941







# 알룬으로 배부른 다이어트

포만감을 증가시켜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감소시킵니다.  
가까운 약국에서  
알룬하세요.

*Huons*

*Allooin*



www.allooin.co.kr

**알룬정** [광고심의필: 1208-0201]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전속모델 : 주상욱, 유리아  
소비자상담실 : 080-447-4700





##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2호  
전화 : (02)565-1700 팩스 : (02)564-1701  
E-mail : [capa21@hanafos.com](mailto:capa21@hanafos.com)  
<http://www.caupharm.or.kr>